# 한양대학교 2027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인문 계열

# 모 의 논 술

수험번호 (　　)　성명 (　　)

[문제] (가)의 ㉠과 (나)의 ㉡을 중심으로, 예술에 대해 두 제시문이 강조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설명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의 ㉢이 가진 의미에 대해 서술하고, '진정한 예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1,200자, 100점)

(가) 근대 초기에 나타난 변화는 전반적으로 물질적인 것이었다. 그러다 점차 정신적인 차원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론적인 영역의 많은 부분이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인 영역으로 넓어졌다. 예를 들어 벽을 구조적인 영역에서만 해석하기에는 무엇인가가 부족했다. 이는 공간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도 같았다. 모든 분야에서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고찰이 시작된 것이다. 벽은 공간을 나누고, 하중을 전달하고, 내부와 외부를 분리한다. 그러나 정신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시야가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벽이다. 이러한 생각은 건축이라는 예술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유리로 사방을 막는 건물이 구상되고 설계된 것이다. 즉, 벽은 시야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리로 막힌 건물에는 벽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유리에 커튼을 치면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 커튼이 곧 벽이 되었다. 유리로 외벽을 마감한 건물을 '커튼 월'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이렇듯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의 '공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띠게 되었다.

(나)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인체의 일부를 작게 그려 넣는 것은 원근법에 따른 불가피한 시각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의 크기를 줄여 버리는 것으로 느껴졌다. 그것은 불균형이요 파괴였다. 그들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시각 상이 아니라 개념 상에 바탕을 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시각 상이란 시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다. 같은 사물이라도 보는 위치에 따라 실제보다 더 크거나 작아 보이듯 주체가 본 그대로 상을 나타낸 것이다. 반면 개념 상은 시각적으로는 모순되더라도 알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이미지다. 우리나라 민화의 책거리 그림을 보면 책장이나 탁자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길이가 같은 것이 많다. 건물을 그린 그림도 마찬가지다. 보이는 대로 그린다면 뒷부분의 길이가 짧게 그려져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그리지 않은 것이 더 많았다. 이런 사례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근대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서 철저히 시각적 경험에만 의존해 대상을 묘사하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났다. 대상의 세부와 물질성을 재현하는 시각적 사실성이 서양 미술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안착하게 된 것이다.

(다) 합창단 활동에 가장 열성적이었던 사람은 엇박자 D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지못해,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특별 활동 반 중의 하나를 선택했지만 그는 달랐다. 첫 모임에서부터 남달랐다. 혹시, 정말 혹시, 단장을 맡고 싶은 사람이 있냐는 음악 선생님의 질문에 그는 번쩍 손을 들었다. 너무나 진지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음악 선생님과 나머지 아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그럼, 네가 단장을 맡으면 되겠네, 뭐, 딱히 할 일은 없고, 축제 때 부를 노래의 악보를 복사하는 거랑, 그리고, 음, 뭐, 딴 일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아무튼 네가 단장이 됐으니까…… 그래, 축하한다."라는 선생님의 축하 말씀이 끝나자 그가 곧 입을 열었다.

"축제 때는 어떤 곡을 부르게 되나요?"

"그거야 지금 정하긴 힘들고, 다섯 달이나 남았으니까 앞으로 생각해 봐야겠지."

"오늘은 그럼 어떤 곡을 연습하나요?"

뒷면에 계속 ☞

"연습? 아, 그래, 연습. 오늘은 첫날이니까 자습을 하도록 하자."

"개인 노래 연습을 하는 건가요?"

"자, 그럼 각자 공부해라.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지? 노래 연습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해도 되고."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실에 앉아 각자의 공부를 했다. 실망한 엇박자 D가 밖으로 나가서 노래 연습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무도 엇박자 D를 신경 쓰지 않았다. 음악 선생님은 첫날이니까 자습을 한다고 했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자습은 계속 이어졌다. 우리는 커다란 음악실에 앉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우고, 세계의 지리를 외웠다. 합창단에 들어가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엇박자 D 빼고는 모두 알고 있었다. 나는 음악실 의자의 보조 책상에 엎드려 밀린 잠을 보충했다. 합창단이 연습을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4개월 후, 그러니까 축제 한 달 전이었다.

(중간 줄거리: 학교 축제를 한 달 앞두고 마지못해 시작된 합창 연습. 음악 선생님은 화음을 맞추는 데 방해가 되는 음치 아이들을 가려내어 입만 벙긋거리는 '립싱크 반'으로 분류한다. 엇박자 D 또한 립싱크 반이 되어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는다. 그때 '나'를 포함한 친구들은 그 부당함에 항의하지 않고 침묵한다. 그런데 음치인 엇박자 D가 노래를 불러 축제 공연은 엉망이 된다. 음악 선생님은 합창을 멈추게 하고 그에게 망신을 준다. 시간이 흐른 후 공연 기획자로 일하던 '나'는 20년 만에 무성영화 전문가가 된 엇박자 D의 연락을 받는다. '나'는 유명 가수인 '더블더빙'의 공연 기획자로 이름을 올려 보고 싶어 엇박자 D가 기획하는 '더블더빙과 무성영화의 만남'이라는 주제의 공연에 참여한다. 엇박자 D의 부탁으로 고교 시절 합창단을 함께했던 친구들을 공연에 초청한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다.)

공연이 끝났지만 관객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두 앙코르를 외치고 있었다. 몰론 앙코르곡을 준비해 두었다. 더블더빙이 다시 나타났고, 모든 조명이 꺼졌다. 관객들의 소리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하나의 기다랗고 평평한 일직선으로 변했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다. 음악 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대본대로라면 그들의 최고 히트곡을 연주할 차례였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다.

"음향, 뭐가 잘못된 거야? 사운드 체크해 봐."

무선 헤드셋으로 엇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잘못된 건 없어. 너 몰래 만들어 둔 시나리오야. 20년 전 친구들에게 바치는 선물이야."

아주 작게 들리던 음악 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관객들 사이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누군가의 노래였다. 아무런 반주도 없이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노래였다. 그제야 노래의 제목이 생각났다.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라는 노래였다. 20년 전 축제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엇박자 D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세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합창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창이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음이 맞질 않았다. 박자도 일치하지 않았다.

"스물 두 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싱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 줘."

무선 헤드셋에서 다시 엇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명은 하나도 켜지질 않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이어서 그런 것일까. 노래는 아름다웠다.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마치 화음 같았다. 어둠 속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음치들의 노래는 어두운 방에서 전원 스위치를 찾는 왼손처럼 더듬더듬 어디론가 내려앉았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몇몇 관객은 후렴을 따라 부르기까지 했다. 1절이 끝나자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뒷면에 계속 ☞

그리고 조명이 켜졌다. 더블더빙이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의 간주를 연주했고,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은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 브라보를 외쳤다.

음치들의 노래 2절이 시작되자 더블더빙은 다시 연주를 멈췄다. 악기를 연주하면 그들의 노랫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것이 분명했다. 스물 두 명의 노래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이유는, 아마도 엇박자 D의 리믹스 덕분일 것이다. 스물 두 명의 노랫소리를 절묘하게 배치했다. 목소리가 겹치지만 절대 서로의 소리를 해치지 않았다. 노래를 망치지 않았다.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의 얼굴에는 아득하게 흐려진 어떤 것을 추억하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벙긋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나 역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오래된 노래였지만 가사가 모두 기억났다. 2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들이 립싱크를 하고 있었다. 음치들의 노랫소리에 맞춰 우리는 입을 벙긋거렸다. 노래를 따라 부르긴 했지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그저 입만 벙긋거렸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러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것이 엇박자 D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